

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을 본다.



## 제7과

성소제도를 통하여  
구속의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치심

**시작하는 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다음, 그 이끌어 내신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치기를 원하셨다. 즉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업의 표상임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그 실상의 표상이며, 성소제도의 속죄법을 통하여서는 예수께서 이루실 죄 사함을 얻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쳤다. 이제 성소 제도에 나타난 구속의 방법을 연구해 보자.

### 1. 성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한 것이다.

[출 25:8,9]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9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 33:20]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히 12:29]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사 57:15]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 성소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죄인인 채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 모든 제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처리하시는 속죄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다.

### 2.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에서 외치신 말씀은 성소제도의 실제적 의미를 선포하신 것이다.

[마 4:17]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더라.

[행 2:38,39]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 회개하라는 말씀은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그렇게 속죄제를 드려서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말씀은 성소에서 속죄제를 드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 것을 실제적으로 가르치신 것이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회개는 것은 바로 성소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의 실상이요, 속죄제는 이것을 표상하는 제사이다.

### 3. 또한 예수님 자신이 성소의 실체로서 실제적인 성소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다.

[마 1: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 여기 “거하시매”라고 번역된 말은 “에스케노센”(ἐσκηνώσεν)으로 천막을 치고 거한다는 뜻인데 출 25:8의 성취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성소의 원형이시며 성소의 목적의 성취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성소 안에 있는 것과 같다.

### 4. 그러므로 성소와 그의 모든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속죄의 사업과 그 결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히 9:7]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 년 일 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히 9:22]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행 20:28]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고전 6:19,20]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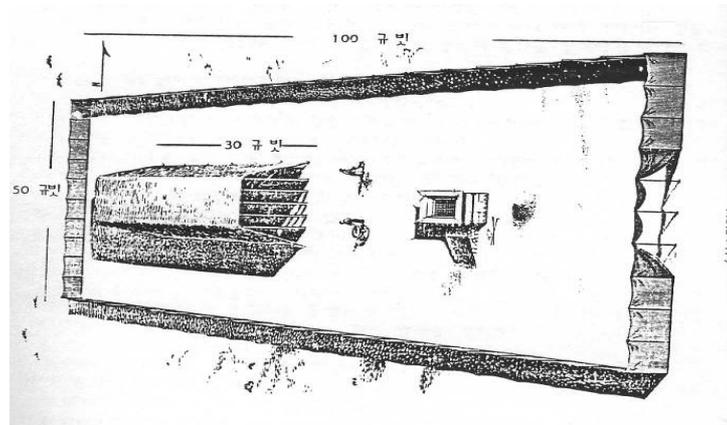
- 위의 말씀은 성도의 몸이 성소라고 가르친다. 성소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전이 된 성도와 함께 거하신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에 합당하도록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육체와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야 한다. 영적인 일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육신도 깨끗해야 한

다. 청결 생활은 목욕하여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뿐만 아니라 몸이 온전히 건강하도록 지키는 것도 포함된다. 성도는 먹는 것을 가려서 몸이 깨끗하고 건강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

5. 성소의 구조와 그 기구들은 속죄의 방법과 상태를 표상하고 있다.

● 성소의 구조와 그 기구들의 구체적인 의미

- 1) 성소는 세마포 휘장(揮帳)으로 울타리를 둘러는데 이것은 죄의 세상에서 의의 울타리 안을 지시하는 것으로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영역을 가리킨다.



[출 27:9-19]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백 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 편을 당하게 할지니 10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니 11 그 북편에도 광이 백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니 12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오십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13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오십 규빗이 될지니 14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십오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15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십오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16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놓아 짠 이십 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요 17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18 뜰의 장은 백 규빗이요 광은 오십 규빗이요 세마포 장의 고는 오 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요 19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계 19:8]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도 하더라.

- “세마포”라는 말은 히브리말로 “쉐쉬(שש)”인데, “표백된”이라는 뜻이다. 표백되었다는 의미는 복음의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 그것은 예수의 피로 표백된 옷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의이다. 성소를 둘러 쳐서 성소

밖과 구별짓는 이 세마포 포장 올타리는 그 안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표백하는 자리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도 예수께서 입혀주신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씻으므로 빛나고 깨끗하게 된다.

**2) 이 올타리 동편에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오직 하나가 있는데, 성소의 문은 언제 든지 양의 문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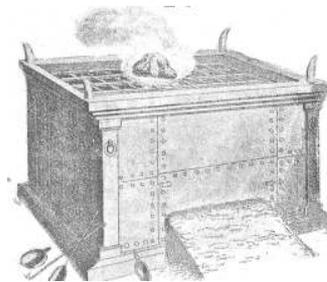
[출 27:16] 뜯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놓아 짠 이 십 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요 10:7-9]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3) 문을 들어서면 번제단을 만나는데 이것은 갈바리의 십자가를 가리킨다.**

[출 27:1-8]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오 규빗, 광이 오 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삼 규빗으로 하고 2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놋으로 싸지며 3 재를 담은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읍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4 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5 그 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니 6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싸지며 7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메게 할지니 8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출 40:29] 또 회막의 성막문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모세에게 명하신대로



앞에 번제단을 두고 드리니 여호와께서 되니라(6절). (번제단)

[레 4:27-31] 만일 평민의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

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허물이 있었다가 28 그

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29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30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31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히 13:11,12]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체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12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롬 4:25]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 죄의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결이 있다.

4) 번제단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는데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씻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침례 받음으로 성전인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출 30:18-20]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그 속에 물을 담으라 19 아론과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20 그들이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그리할지니라.



만들고 그 받침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아들이 그 회막에 들어갈 때에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앞에 사를 때에도

(물두멍)

[출 38:8]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중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벧전 3:21]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엡 5: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약 1:23-25]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24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25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요 13:8-10]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10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계 7:14, 22:14 참고).

5) 성소의 판자들은 이스라엘이 속전(贖錢)으로 드린 은으로 만든 은 받침 기초 위에 세워졌는데 이것은 우리의 속전이 되신 예수님이 성소의 기초임을 가리킨다.

[민 3:45-51]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족 대신에 레위인의 가족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46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이백칠십삼 인이 더한즉 속하기 위하여 47 매명에 오 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이십 게라니라 48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49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50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일천삼백육십오 세겔이라

51 이 속전을 여호와와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273 x 5=1,365 세겔)

[출 30:12-16]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은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13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에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이십 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14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이십 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15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16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시49:7,8]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8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히 못할 것임이라.

● 속전은 돈을 내고 생명을 보전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생명을 속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을 대신 속전으로 드리신 것을 나타내는 예언적 표상이다.

[딤후 2:6]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출 26:19,21,25] 스무 널판 아래 은받침 마흔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축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축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21 은받침 마흔을 이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25 그 여덟 널판에는 은 받침이 열여섯이니 이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출 38:25-27] 조사를 받은 회중의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일백 달란트와 일천칠백칠십오 세겔이니 26 조사를 받은 자가 이십 세 이상으로 육십만 삼천오백오십명인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인에게 은 한 베가 곧 반 세겔씩이라 27 은 일백 달란트로 성소의 판장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일백을 부어 만들었으니 매받침에 한 달란트씩 합 일백 달란트요.

[엡 2:20,21]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고전 3:10,11]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11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마 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행 4: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

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 예수님만이 속전이 되시는 이유는 그분의 생명이 죽은 생명이 아니고 생명 자체가 기 때문이다. 예수님 이외의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생명 곧 썩어질 씨로 태어났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 자체이신 자신의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썩지 않을 씨로 태어나신 것이다. 그러므로 썩어질 씨로 태어나서 사망이 된 그들의 사망을 대신하실 수 있는 자경이 있는 것이다. 만일 똑 같은 썩어질 씨로 태어나서 사망이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망을 대신 하여 속전으로 죽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사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6. 그렇기 때문에 성소는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실 수밖에 없다. 구속의 계획과 진행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출 25:8,9]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9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히 8: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대상 28:11-19] 다윗이 전의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12 또 성신의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와 전의 딸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식양을 주고 13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와 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식양을 설명하고 14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명을 만들 금의 중량과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명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15 또 금등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중량과 은등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중량을 각기 적당하게 하고 16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17 고기 갈고리와 대접과 종자를 만들 정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중량과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18 또 향단에 쓸 정금과 또 타시는 처소 된 그룹들의 식양대로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여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와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19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와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20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와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마치는 말:** 이 과에서는 성소제도의 일부만 연구하였다. 이것을 통하여서도 성소가 구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옛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그 진행을 출애굽 사건과 성소제도를 통하여 아주 쉽게 깨닫도록 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주위 문화의 강한 영향으로 계시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과 그것을 올바르게 모든 민족과 국가에게 증거 해야 할 특권을 잃

어버렸다. 우리는 그들이 잃어버린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 영적 이스라엘의 고귀한 위치를 잘 지켜야 할 것이다. 이제 남은 공부를 통하여 더 깊이 자세히 알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란다.